

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1차 회의 계획

□ 회의 개요

- 개최 목적 :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
- 일시 및 장소 : '21.3.30(화) 14:00~16:00, 서울 LW컨벤션 크리스탈홀
- 참석 대상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,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,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, 전문가, 농식품부 식량정책과, 국제협력총괄과 등 10여명 내외

□ 진행 순서(안)

구성	시 간	주요 내용	비고	
1부 발제	14:00-14:05	5'	· 인사 말씀	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
	14:05-14:20	15'	·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설명 (UN 자문위원 나바로 영상)	국제협력총괄과
	14:20-14:25	5'	· 국내 논의 현황 및 향후 계획	식량정책과장
사회자 KREI 박성진 박사	14:25-14:35	10'	·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	농특위 홍근형 팀장
	14:35-14:45	10'	·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	KREI 황윤재 박사
2부 토론	14:45-15:55	70'	· 토론 ① 푸드시스템 정의·목적 등 ② 국내 논의 주제(안) 검토 ③ 향후 2~4차 회의 관련 의견 수렴 (참석자, 논의범위 등)	토론자
좌장 김홍상 원장	15:55-16:00	5'	· 폐회 인사	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

붙임1

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

- (배경)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
 - * 푸드시스템: 농업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
- 일시: UN 총회(9.21(화)~27(월)) 계기, 장소: 미국 뉴욕
- 결과물: 정상회의 시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포함한 행동선언(Statement of Action)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
- (국제 동향) UN은 “사람을 위한 정상회의(people’s summit)”를 목표로 글로벌·국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
 - UN은 SDGs 달성을 위한 5대 실천분야(Action Track)*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팀 구성, 자문 및 공개세미나(public forum) 진행
 - *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UN기구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이 글로벌 논의 담당, 과학그룹, 자문위 등이 자문 제공

< 5대 실천분야(괄호는 예시 분야) >

-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(식량손실·낭비)
-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(안전·건강한 소비, 도농연계)
- 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(환경 보전, 생태계보호)
- ④ 평등한 생계·가치 배분 촉진(평등한 고용, 여성농업인)
- ⑤ 취약계층·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(코로나19·재해관리, 푸드뱅크)

- 글로벌 논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재 예정
- (국내 논의) UN측은 각 회원국별 의장(National Dialogue Convenor)을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각국에 요청
 - 각 회원국 정부 등이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UN에 통보
 - *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의장으로 지정하고 UN에 통보(2.10일)
- (향후 일정) 글로벌 논의 참여('20.11~'21.6) → 국내 논의 진행('21.3~6) → 장관급 사전회의('21.7, 로마) → 정상회의('21.9, 뉴욕)

붙임2

국내 논의 진행 현황 및 계획

- (추진 현황)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해 의장(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)을 지정하고 UN에 식량안보, 탄소중립을 관심분야로 통보
- (논의 주제) 정책 추진상황 연계,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근 국가 식량 계획(안)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주제 선정
 - 국가 식량 계획(안)에 따르면 논의 주제는 크게 '①식량 안보, ②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, ③ 먹거리 보장'의 3가지로 분류
 - * 우리부 국가 식량 계획(국가 푸드시스템 계획) 세부 과제는 농특위 국가 식량 계획을 바탕으로 1차 회의(21.3.30.)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
- (논의 방식) 3~5월 동안 5차례 국내 논의 실시(1.5차 회의 의장 주제)
 - 1차 논의 시 UN 정상회의, 국가 식량 계획(안)을 설명하고 향후 논의 방향 및 주제 확정 → 2~4차는 주제별 논의 → 5차는 종합 토론
 - * UN 정상회의 준비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과제에 논의가 집중되지 않고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제 및 토론 실시
 - 국회 의견 수렴을 위해 종합토론은 농해수위 의원실과 공동 주최 검토 중
 - 발제를 통해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토론을 실시하여 의견 수렴(논의 결과는 UN에 통보)
 -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오프라인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만 참여하고 청중 없이 진행하되, 온라인(유튜브)으로 실시간 중계 실시(1.5차 회의 예정)
 - 온라인 중계 관리자가 유튜브 댓글을 정리하여 의장에게 전달하면, 의장은 제시된 의견을 소개, 필요 시 해당 토론자가 답변
- (추진 일정) (3.30일) 1차 회의 → (4월) 2차3차 회의 → (5월) 4차5차 회의
- (홍보) UN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 결과, 사전 준비 상황 등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
 - UN 정상회의, 국내 논의 자료·결과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

붙임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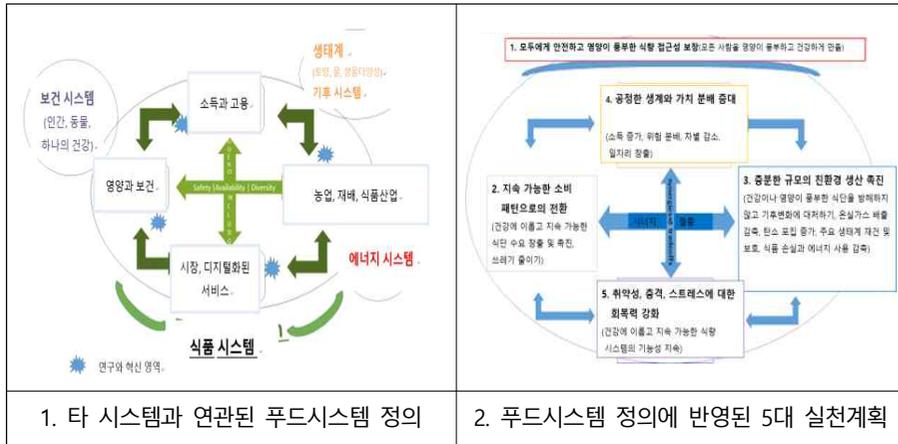
국가 식량 계획 주요 과제(안)

※ 농특위 안을 바탕으로 하되 농식품부에서 일부 세부 과제는 제외 또는 추가하는 등 조정하여 국내 논의를 위한 과제(안)을 재구성하였음

1 식량 안보 (대과제)	
① 밀·콩 산업 육성을 통한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 + 원예·축산 (세부 과제)	가. 밀·콩 산업 육성 나. 원예 작물 및 축산물 안정적 공급 추가 다. 사료작물 공급 확대 추가
② 농지, 기반시설 등 자급 기반 유지 + 농업인력 확보	가. 농지 유지 및 활용 나. 농업 생산기반 확충 다. 농업 인력 육성 추가
③ 조기경보시스템, 국제 협력, 해외 조달역량 강화 등 위기 대응력 제고	가.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나.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다.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
2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	
① 탄소 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	가. 탄소 중립 기반 구축 나.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다.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 라. 신재생에너지 확대
② 친환경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, 농식품 폐기물 자원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	가. 친환경 농업 육성 나. 경축순환농업 확대(폐기물 자원화) 다.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
③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 지역 내 생산·소비 체계 구축	가. 지역 푸드플랜 확대 나. 지역내 생산·소비 연계(중소농 중심) 다.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
3 먹거리 보장	
①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확대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	가.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나. 과일 간식 지원 다. 취약계층 통합 지원프로그램 마련
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·영양 개선	가.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나. 공공급식 개선(학교, 군, 공공기관) 다. 나트륨·당류 저감화
③ 생산-유통-소비 단계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	가. PLS 정착·확대 나. 토양, 수질 등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 다.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

붙임4

푸드시스템 개념(UN측 정의)



□ 푸드시스템의 포괄적 정의

농업, 임업, 수산업, 식품산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생산, 집하, 가공, 유통, 소비, 처리와 관련된 부가가치 활동과 이들이 속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, 사회, 자연환경을 포괄

- (생산) 농업(축산, 임업, 수산업 포함)과 식품산업의 생산
 - 생산주체인 농촌 및 생산이전의 비료·종자 등 투입산업 등 포함
- (식량안보) 미래세대에게 식량 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, 경제, 환경적 기반이 저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
- (기후변화) UN 2030 목표와 기후중립 및 SDGs 달성을 반영
- (바이오에너지산업) 순환 바이오 경제* 개념도 포함

* △농업생산과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에너지, △생산 및 식품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완화

붙임5

5대 실천분야별 논의개시를 위한 UN 보고서 (요약)

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

- (배경) 무역, 도시화, 빈곤 등으로 기아,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반면, 글로벌 식량생산의 3분의 1은 식량손실,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짐
 - 이에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토지, 물, 비료 등의 1/4가 낭비되고 농업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% 차지, 토지 황폐화, 물부족, 생물다양성 감소 촉진
- (논의사항) △정책, 연구, 모니터링, 평가의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, △토양탄소격리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적용, △식품손실·음식물 쓰레기 감축, △영양과다·결핍을 조절하는 식생활 변화 주도 등 기아종식,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일반인 접근보장 등 논의

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

- (배경) 식품은 환경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, 기름·홍수 증가 등 주요 기상 이변의 가장 큰 희생양이며, 환경복원에 활용가능한 최선의 도구임
 - 이에 현재 식품 소비 패턴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함
- (논의사항) △공공조달, 물류·유통 등 식품공급망, △식품성분 조정, 1인분 용량 변경, 음식물쓰레기 재활용, 제품디자인 포장용기 전환, △도시-농촌의 연계 강화 등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

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

- (친환경적 식품생산 토대) △식품생산을 위한 과도한 토지전용으로부터 자연 생태계 보호, △기존 식품생산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, △훼손된 환경을 복원, 회복, △토지 일부를 보존을 위해 남김

- (논의사항) △지역단위 생산, 도시농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, △농가, 농업전문가, 학계 등 지식개발 참여·강화, △천연비료, 식물 보호제, 질소고정생물 등 친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지식·혁신 활성화, △참여자 인증시스템(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), 참여 보증제도 (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) 등 농촌지역의 권한 부여와 농가간 협력 도모, △사회적 기업·공정무역·협동조합 등에 대한 순환/연대경제 등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△친환경 식품생산의 마케팅, 가공시설 개선 등 논의

4) 평등한 생계·가치 배분 촉진

- (배경) 가정, 지역사회, 국가, 글로벌 차원에 만연한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이 푸드시스템의 빈곤 경감, 평등한 생계를 달성하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음
- (논의사항) 평등한 고용기회, 농촌 여성 농업인·소수민족 등 푸드시스템상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등 논의

5) 취약계층·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

- (배경) 푸드시스템 내 모두가 불안정에 대비·참여하고 재난·위기시 모두에게 식량안보, 영양, 평등한 생계를 제공할 필요 있음
 -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경지, 관개, 비료 등 투입요소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산업들과의 토지, 물, 노동력 등 천연자원 사용에 있어 경쟁관계를 조정할 필요 있음
- (논의사항) △지역차원에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, △코로나 19, 가뭄 등 재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, 위험평가, 준비 등 리스크 공유 매커니즘 개발, △공공, 민간, 생산자 파트너십(4P, public-private-producers-partnership)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평등 증진,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(푸드뱅크, 긴급식량창고, 영양공급을 위한 현금지원) 등 논의